

스타일이 있는 가든 디자인 제안 ②

Secret Garden _ 맨발로 걷는 정원

집은 내키는 대로 쉽게 바꿀 수 없지만, 정원은 계절에 따라 기분에 따라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 즐길 수 있다. 꽃을 기다리는 셀렘을 주고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달래주기도 하는 행복한 정원. 가든 디자이너 강혜주 씨가 제안하는 정원 디자인 속에서 나만의 꿈을 찾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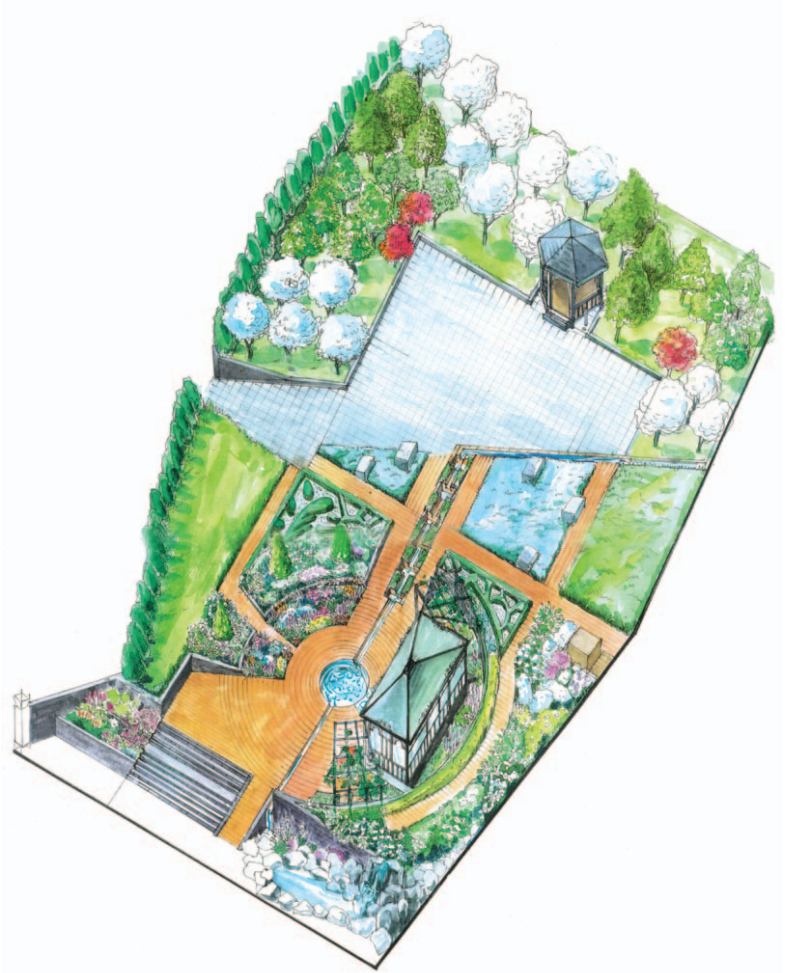


디자인
컨셉트

많은 도시인들이 전원생활을 동경하지만, 막상 맨발로 잔디밭을 거닐려면 손사래를 친다. 시골에서 나고 자란 사람에게도 수풀이 우거진 곳을 거침없이 다니기란 어려운 일이다. 정원에 덤불이 무성하면 느닷없이 나타나는 뱀이나 곤충들로 두렵고, 정원 가득 무성히 자라는 잡풀에도 두 손을 들고 만다.

일찍 전원생활을 경험했던 의뢰인은 디자인에 앞서 '관리하고 쉽고, 맨발로 거닐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요구했다. 이미 지어져 있는 집 앞으로 약 4m 정도 높은 땅을 정원으로 만드는 작업이었다. 주변이 저수지와 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공간으로 여타의 소음도 없는 좋은 장소였다. 산에서 흐르는 건수(땅 속에 스며있는 물)를 모아 경사지를 활용한 수로를 만들기로 했다. 바람과 소리, 햇살을 담은 물이 정원을 관통하면서 다양한 모양의 연못과 수로를 거친다. 결국 공간에 따라 느낌이 다른 물소리를 얻을 수 있었고, 벽돌 바닥을 맨발로 거닐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원이 완성되었다.

시간이 멈춘 나른한 오후에 정원에서 누리는 낮잠. 이런 그림 같은 풍경을 위해 안주인은 가제보와 아기자기한 정원 장식품들로 보기 좋게 연출했다. 정원이 마치 또 다른 거실인양, 아름답고 편안하다.



정원은 집터보다 4m 더 높은 땅에 자리한다. 슬로프와 계단으로 3단계로 단차를 두어 정형적 포멀가든보다는 모던한 이미지로 보이도록 디자인했다.



계획보다 아담한 단조 가제보와 연못 조각품이 들어섰다. 그리 높지 않은 산이 배경이 되어 흰색 구조물이 더욱 돋보이고, 전체적으로 소담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한다.



맨 윗땅에서 내려다 본 집과 정원 전체의 모습이다. 이처럼 위에서 보면 썩큰 정원이고, 집안 거실에서 보면 하늘과 맞닿은 정원처럼 보인다. 공간이 높낮이 덕분에 보는 시각에 따라 다채로운 이미지를 갖는다.



가제보와 마주한 쪽은 원래 있던 수양단풍을 옮겨다 심었다. 그 아래는 안주인이 직접 만든 부부상이 사랑스럽게 놓여 있다.



꽃밭 속에, 연못 안에 작은 소품이 주는 아기자기함이 있다. 주인의 취향이 담긴 정원용품들은 꽃과 정원을 돋보이게 하는 소품이다.



가제보는 방수커튼과 라탄소파, 방수 처리된 패브릭들로 부부의 안락한 공간이 되었다. 바람에 날리는 속커튼이 보는 이의 마음에도 봄바람을 불러 일으킨다.

수로



사자상에서 나오는 1차 연못은 수직 낙하하는 물소리로 청량감을 준다. 주변의 그라스와 속새는 지난해 식재라 아직 봄을 준비 중이다.



물은 2차 원형 연못에 머물다 수로로 흐른다. 연못 벽돌은 줄눈을 덜 채워 입체감을 줬다.



사자상 토수 조형물 구하기가 어려워 직접 제작에 들어갔다. 점토로 원형을 만들고 석고 작업과 여러 단계를 거쳐 청동주를 사자상을 만들었다.



수로는 벽돌을 경사지게 쌓아 물의 방향을 잡아줘 물이 지그재그로 흐른다.

경사면



기존 연못은 온양석으로 쌓은 반면, 새로 만든 정원은 검은 블록과 어울리도록 회색톤의 보령석을 골랐다. 포멀 정원이 황금실화백과 미산딸나무를 포인트로 하는 유럽식 식재라면 사면지는 명자, 매자, 목단식의 한국적 이미지의 식재들이다.



오른쪽과 왼쪽 양 날개의 윗단은 손을 자주 봐야 하는 잔디 대신 키 낮은 그라스류를 식재했다. 털수염풀과 감동사초를 이중으로 식재해 부드러운 느낌과 그라데이션 나는 컬러감을 주었다.

텃밭



텃밭에는 덩굴성 식물이 타고 오를 지주대(Trellis)를 설치하고 식용꽃과 엽채소, 구근류를 심었다. 텃밭 주변에는 메이플사과, 블루베리, 뽕나무 등을 꽃을 피우고 있다.

BEFORE



AFTER



기존 주택보다 4m 높은 정원 필지는 원래 수풀이 무성한 빈 땅이었다. 경사지를 전체적으로 3단으로 나눠 집과 어우러지는 정원을 조성했다.

BEFORE



AFTER



땅의 제일 윗부분은 개망초와 칩이 무성하게 덮혀 있었다. 이곳을 흙마당과 텃밭으로 조성했다.

TIP _ 건수로 연못 만들기



- 01 검은 유공관의 물이 모이는 곳에 땅을 파고 유공관, 부직포, 잡석을 넣어 묻는다. 고인 물이 집수정으로 유입되도록 하고 다른 곳으로 새지 않도록 조치한다.
- 02 흰색 왼쪽 관이 수로로 연결되는 부분이다. 마개로 물의 유입을 조절할 수 있다.
- 03 주변의 건수를 이용하면 전기를 사용해 인위적으로 물을 돌릴 필요가 없어 좋다. 혹 건수가 마를 경우를 대비해 수돗물을 유입시킬 수도 있도록 이중장치를 해 두면 좋다.

한옥풍의 담장에 단조대문이 설치된 입구다. 장마 때면 물이 들어차고 가을에는 떨어진 단풍잎들이 대문을 넘어 안마당으로 들어왔다. 결국 동판을 접어 현관의 뚫린 부분을 막기로 했다. 동판이 자연스럽게 변색되면 더 조화로워질 것이다.



원래 안마당에 자리했던 연못 앞 gazebo는 새로 단장해 위로 이전하기로 했다. 지붕을 목재로 바꾸고 붉은 색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집 뒤면에 리모델링한 공간이다. 베이스를 바르고 투톤으로 칠해서 벗겨내고 다시 칠하는 과정을 거쳐 빈티지한 페인팅 작업이 완성되었다. 옛 학교 느낌의 연출로 붉은 색 외벽에는 꽃그림도 그려 넣었다. 🌸



시공 (주)플로시스 가든팁스 02-445-8890 www.flosys.co.kr



가든디자이너 · 보타닉아티스트 **강혜주**

서울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화가로 활동하던 중, 타사와 탐 스투어트 스미스의 정원에 마음을 빼앗겨 본격적인 정원 디자이너의 길로 들어섰다. 꽃을 주제로 한 4번의 개인전을 열고, 주택과 상업공간 정원 뿐 아니라 공공장소 설치 디렉팅까지 다방면으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핵안보정상회의 포토월, 대구꽃박람회 주제관, 일산세계꽃박람회 초청작 등을 직접 디자인했다. 현재 가든디자이너 홍미자 씨와 함께 와일드가든디자인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031-966-5581 www.와일드가든.com wildgarden3@naver.com